

雲門

불기 2557년
여름호
통권 제125호
雲門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4(봄)호를 읽고 -

- ❀ 바쁜 일상에 지친 나에게 상큼하고 화사한 봄철 운문지는 한줄기 신선한 청량제입니다. 하루하루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순간 유쾌함을 선사한 운문지 감사합니다. / 사교과 효엄
- ❀ 모자에 가득 담긴 꽃들이 봄을 말해 주네요. 한층 홍미진진해진 운문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 사교과 선주
- ❀ 수행의 두레박에 담긴 글 중,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라는 문구가 기억납니다. 잡을 수록 떠나고, 놓을수록 정리되는 삶의 법칙을 잊지 말자고…… 통연히 명백해지는 것은 바로 지금, 내게 달려 있다고…… 되뇌어봅니다. / 사집과 종윤
- ❀ 新성행당기를 보면서, 한 공간에서 같은 공부를 해도 각각 나름의 法을 만들어 감을 느낍니다. 한 회상에서 만난 사집반. 아픈 이들은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마음까지 병이 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사집과 덕현
- ❀ 지난 시간을, 현재의 나를, 미래의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운문지여서 감사합니다. / 사미니과 청암
- ❀ 치문반 고경 스님의 방부소감!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운문사에 첫발을 디딜 때를 되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치문반 모두 힘 모아 운문의 금강이 되길 발원합니다. / 사미니과 우보
- ❀ 치문반에게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지내게 해주는 운문사라는 강원을 사랑합니다. 운문지도 역시 감동입니다. 100% 리얼~♥ / 사미니과 동우下

雲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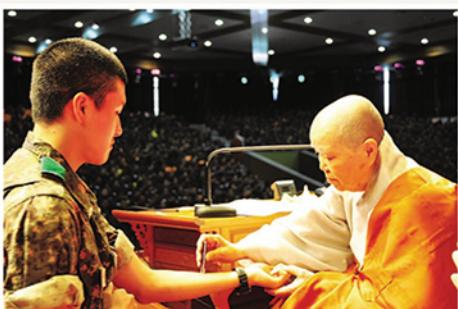
목차

- | | |
|--|--|
| <p>02 호거산 운문사</p> <p>04 죽림현</p> <p>06 교수논단</p> <p>10 풍경소리</p> <p>12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p> <p>14 기획연재</p> <p>17 깨달음으로 가는 길</p> <p>18 특별기고</p> <p>22 담소</p> <p>24 차례법문</p> <p>26 여름불교학교 특집</p> <p>28 운문, 운문인</p> <p>30 학인논단</p> <p>35 想</p> <p>36 수행의 두레박 하나</p> <p>38 수행의 두레박 둘</p> <p>40 수행의 두레박 셋</p> <p>42 특별탐방</p> <p>46 이 한 권의 책</p> <p>48 운문논평</p> <p>50 운문소식</p> <p>51 등불</p> | <p>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 통권 124(봄)호를 읽고</p> <p>수계공덕 명성</p> <p>『禪宗四部錄』에 대하여 ① 지성</p> <p>대중스님들께 사집반</p> <p>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선정</p> <p>온전한 하나 됨의 귀결 운성</p> <p>가릉빈가의 음성 편집부</p> <p>우리는 보시다운 보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가? 강신주</p> <p>부처님 오신 달의 특별한 단상 조명렬</p> <p>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어담</p> <p>여기 보세요 천진동자님들~ 칠컥! 편집부</p> <p>함께하는 전통매듭 ② 편집부</p> <p>불교의 명상과 지관문止觀門 ② 정행</p> <p>옴 주륵주륵 사비하 진용</p> <p>나의 틀 속에서 벗어난 소임 동욱</p> <p>서산대사의 선물 지단</p> <p>매미와 같은 시간 해운</p> <p>틱낫한 스님과 함께한 1박 2일 효업</p> <p>『틱낫한의 사랑법』을 읽고 법기</p> <p>소통을 위한 열린 마음 편집부</p> <p>통권 125호, 여름호, “布施…달”</p> |
|--|--|



수계공덕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저는 2007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사로 초청되어 훈련병들에게 수계를 주어왔습니다. 올해도 법사로 초청되어 새로 지은 시설 좋은 연무사 법당에서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500명이나 되는 젊은 장병들이 모여 있는데도 공기가 신선하고 폐적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불자로서 첫발을 내딛어서인지, 장병들의 신심이 강처럼 흐르고, 우뚝 선 산처럼 기세가 강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계를 받고 수행의 출발점을 나서는 것이 불자로서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계를 받지 않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를 받으므로 혼들리는 마음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한층 굳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경에서도 계를 받음을 계생戒生 혹은 계력戒力이라고 합니다. 계생이란 계율수행의 시작이란 뜻이며, 계력이란 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곧 여법히 수계를 하는 것이 진리로 향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세세하게 나누면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 근본은 모든 악한 것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데 있으며, 범부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덕을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율은 마치 평평한 땅과 같아서 만 가지 선善이 이로부터 생기고,
계율은 마치 홀륭한 의사와 같아서 능히 온갖 질환을 치료하고,
계율은 마치 밝은 구슬과 같아서 능히 어둠을 타파하고,
계율은 마치 배나 뗏목과 같아서 능히 고해苦海를 건너고,
계율은 마치 영락과 같아서 법신法身을 장엄한다.
오늘은 비록 편안하더라도 내일 아침은 보장하기 어렵나니,
마땅히 계율의 법을 지켜서 조속히 생사를 건너야 한다.”

- 대장일람집, 지계품 -

계를 받고, 또 계를 지키는 것은 옷이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허망함에 쉽게 물들고 나태해지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로 인해서 선정에 들며(由戒入定), 선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며(由定發慧), 지혜로 인해서 부처님의 무루복(由慧發福)을 지어서 이생에 불국정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

『禪宗四部錄』에 대하여 ①

지성 / 운문사승가대학 중강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信心銘
3. 證道歌
4. 十牛圖
5. 坐禪儀
6. 나오는 말
7. 참고문헌

「信心銘」을 독송하였다. 이를 계기로 필자도 禪에 관하여, 마음의 조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에 禪宗四部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마그 유래를 음미해 보았다. 학술적으로 낱낱을 깊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인 우리들이 닦아야 할 禪의 지침서를 통해 수행의 절차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信心銘」과 「證道歌」는 禪思想의 요체를 簡明 直切하게 노래한 것이며, 「坐禪儀」는 가장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坐禪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十牛圖」는 누구라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10장의 그림으로 수행의 절차를 제시하였으니, 대승불교의 꽃이라 볼 수 있는 禪思想과 좌선의 방법,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지만 문자에 의하여, 禪의 기초지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信心銘」은 禪宗의 初祖인 달마대사(?~528?)의 손상좌에 해당하는 三祖僧璨(?~606)의 작품이며, 「證道歌」는 육조혜능(638~713)의 법을 계승한 永嘉玄覺(665~713)의 작품으로 본다. 「十牛圖」와 「坐禪儀」는 중국 宋代(960~1279) 중기에 성립했다고 보는데, 특히 「坐禪儀」는 현존 最古인 『禪苑清規』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元代(1279~1386)에 재편집했다는 『勅修百丈清規』에도 편입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네 작품은 禪의 역사에 있어 모든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의 성립과정과 내용, 유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들어가는 말

언제부터인지 禪門에서는 「信心銘」, 「證道歌」, 「十牛圖」, 「坐禪儀」를 합하여 『禪宗四部錄』이라 부른다. 이는 모두 禪의 입문서인데, 이들을 음미하면서 읽다 보면 禪에 대해서 웬만큼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 해의 가장 무더운 계절……. 여름에 학인들과 함께 새벽예불과 백필배를 마친 후, 가부좌 틀고

2. 信心銘

信心은 衆生心이다. 信心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마음을 말한다. 혜매는 것도 이 마음이며 깨달음 또한 이 마음이다. 信心이라 해도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도 아니며 다른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다. 人心이 바로 믿음(信)인 것이다. 禪은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풀어가는 알파요 오메가요 길잡

이인 셈이다.

二祖慧可(487~593)는 달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혜가 : “제 마음은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다. 원
컨대 편안하게 해주소서!”

달마 : “마음을 가져와라. 너를 위해서 편안하
게 해주마.”

혜가 :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
니다.”

달마 :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혜가는 二祖가 되었던 것이다. 어언 30
년이 지난 어느 날, 혜가 앞에 젊은 居士가 나타났
다. 혜가가 과거에 자신의 스승인 달마에게 부탁했
듯이, 이렇게 애원했다.

거사 : “저는 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청컨대 和
尙이시여, 참회하게 해주소서.”

혜가 : “너의 죄를 가져와라. 너를 위해 참회해
주마.”

거사 : “죄를 찾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혜가 : “내가 너를 위해 참회해 마쳤다.”

이렇게 해서 젊은 거사는 三祖僧璨이 되었다.

달마가 혜가에게, 그리고 혜가가 승찬에게 제
시한 것, 인간의 마음. 그 비밀을 노래한 것이 바로
「信心銘」이다.

중국에서는 인도승려 아슈바고사 Asvaghosa(馬
鳴 100?~160?)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大乘起信論』
은 大乘의 信心에 대하여 설한 것이다. 이 책은 특
히 妥信이나 狂信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宗教心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가르친다. 수많은 동서고금
의 종교서적 가운데 이 책만큼 信心의 본질에 대하
여 명쾌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책도 드물 것이다.

信心은 살아 있는 생물이다. 수행과 실천을 떠
나서 있을 수 없다. 『대승기신론』은 특히 「修行信
心分」을 별도로 한 단원으로 시설하여 坐禪과 念佛

의 二行을 설한다. 그러한 大乘의 信心을 격조 높고
가장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信心銘」인 것
이다. 4言 146句 584字로 된 이 노래의 그 어떤 구
절을 음미해도 信心이 살아 움직인다. 활발발하다.
「信心銘」은 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한 수행자에게 힘이 되어 주고 지
친 나그네에게 물 한모금 건네주는 우물가의 표주
박처럼 우리를 지켜 주었다. 눈 푸른 납자가 있는
한 「信心銘」의 생명은 계속될 것이며 僧璨은 그 안
에서 계속 살아 숨 쉴 것이다. 禪도 또한 살아 움직
일 것이다.

아래에서 「信心銘」의 텍스트는 현존하는 最古
의 宋版 『傳燈錄』 권30에 의거해서 랜덤으로 음미
해 보기로 하겠으며 번역은 필자가 의역한 것이다.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毫釐有差, 天地懸隔, 欲得現前, 莫存順逆.

지극한 道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직 간택을 꺼
릴 뿐이니,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통연히 명백할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지므로

(道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따름과 거스
름을 두지 말라.

이는 「信心銘」의 冒頭에 해당하는 글이다. 「信
心銘」 전체를 대변하는 중심테제가 된다. 『벽암록』
百則 가운데 제2칙에 이 冒頭글에 관한 趙州禪師의
문답이 나온다. 그만큼 예부터 이 冒頭글이 중요시
되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五欲樂 가운데
性欲과 食欲은 憎愛心에서 비롯된다. 하충부의
뇌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動的인 紋분을 억제하여
평정심을 찾게 되면 깨달음의 핵심이 자연히 밝혀
진다. zen(ぜん)이라는 일본어를 세계에 알려서 일
본의 禪文化를 해외로 수출한 스즈키다이세츠(鈴
木大拙, 1870~1966)는, 「信心銘」을 이렇게 평했다.

“당당한 哲學詩이며, 禪旨의 大要是 이것으로 끝난다.”

참으로 깔끔하면서도 놀라운 코멘트가 아닐 수 없다.

得失是非, 一時放却.
眼若不睡, 諸夢自除.
宗非促延, 一念萬年,
無在不在, 十方目前.

득실과 시비는 일시에 내려놓아라.

깨어 있을 때에는 꿈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진리(宗體)는 짊거나 긴 것이 아니어서, 한순간
이 영원에 통하니,
(진리는) 있는 곳도 있지 아니한 곳도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구나.

지금 이 순간 now & here뿐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영속성을 보아야 한다. 진정한 시간은 길이에 상관없으며 바로 지금의 모습이 영원에 통한다는 것. 진리는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없다고 한들 이미 道의 세계는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속는다. 미혹의 세계로 치달려가기 때문이다.

信心不二, 不二信心, 言語道斷, 非去來今.

마음을 믿는 것은 들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고,
들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 미래 · 현재가 아
니다.

주체인 ‘믿는 마음’과 객체인 ‘믿어지는 마음’은 동일한 것. 마음의 근원에 얹어는 미칠 수 없으며, 현재 · 과거 · 미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

이 최후의 一節이 禪의 眞髓일 것이다. 가령 세 계를 선악으로 二分하는 마음은 ‘妄心’이며, 있는 그대로 지금을 받아들이는 ‘眞心’이 소중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僧璨은 짧은 시절, 문등병으로 피로운 몸뚱어리를 이끌고 慧可를 만나러 간다. 그리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되며 구족계를 받는다. 552년 慧可는 僧璨에게 衣法을 내려주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를 조금 넘었다고 한다. 이후 피비린내 나는 武帝의 폐불정책을 피해 10년 이상의 은거 생활을 하였으며 그의 유일한 제자 道信에게 법을 내려주었다. 나무 아래에서 “生死의 모습은 자유다! (결가부좌하고 入滅하는 자는 많다. 그러나 나는 지금 서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무를 잡고 기립하는 자세로 임종을 맞이했다. 隋煬帝 大業2년(606)의 일이다.

3. 證道歌

인간을 떠나서 道는 없다. 道는 예부터 老莊哲학의 근본원형이었다. 사람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이 그곳에서 나며,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를 實證하는 자는 인간이다. 佛教는 가장 강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證(깨달음)의 종교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證道歌는 “깨달음의 노래”로서 247句 1817字로 이루어진 古詩體의 偕頌으로 오늘날에도 禪家에서 즐겨 애송하는 禪文學의 精華라고 할 수 있다.

證道歌의 지은이는 永嘉玄覺(665?~713)이며 호는 眞覺이다. 당나라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했으며 혜능의 五大弟子 가운데 한 사람이다. 無相大師라고도 하는데, 천태종의 교학을 배워서 천태지관에 정통했으며, 항상 禪觀을 은밀히 닦았다고 한다. 그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다만 六祖慧能에게 가서 하룻밤을 신세 지고 六祖의 법을 계승하여 一宿覺이라고도 불린다는 일화가 전해질 뿐이다.

證道歌 제7단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求道의 여행에 대하여 이렇게 회상한다.

“江海를 돌아다니고, 山川을 건너 스승(혜능)을 찾아 道를 묻고 참선을 하였다(遊江海涉山川, 尋師訪道爲參禪).”

육조혜능의 법을 깨닫고 나서는 生死라는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걷는 것도 禪이며, 앉는 것도 禪이다. 말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心身은 언제나 安心 그 자체다. 내용을 풀어서 음미해 보도록 하자.

君不見。

絕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배움을 뛰어넘어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기에
무명 같은 성품이 그대로 佛性이고, 幻化 같은
헛된 몸이 그대로 法身이다.

證道歌의 冒頭이다. 이 계송이 너무 좋아 필자는 선방에서 안겨 중에, 남몰래 외워 첫송을 칠 때 애용했던 계송이다. 당시를 회상하니, 수행에 대한 점차도 모르던 시절이 아니었나 회상하게 된다.

道의 본래성은 絶學에 있다. 羅漢果를 無學果라고 하며, 辟支佛을 연각, 독각이라고도 부른다. 『老子』에도 ‘絶學無憂’라는 표현이 나온다. 배움이 이미 끝난 이에게는 더 이상의 근심도 배울 거리도 없다. 한가하게 노닐면 그뿐이다. 그래서 부처를 無事人(일 없는 자)이라고 하지 않는가. 無明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으니 聖人은 妄을 여의었으며 그렇다고 眞을 따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無明의 참다운 성품은 佛性 그 자체인 것이다. 『維摩經』의 「觀衆生品」에서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문수사리：“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봅니까?”

유마힐：“가령 마술사가 幻人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水中の 달을 보듯이, 거울 속의 얼굴을 보듯이, 아지랑이처럼, 메아리처럼, 구름처럼, 물거품처럼…….”

그러나 우리는 無明으로 덮인 중생들인지라, 닦아야 할 眞이 따로 있다는 二分法의 思考의 틀에서 산다. 너와 내가 있고, 山河大地도 있다. 물론 세상사 이치에 있어 格物하지 않을 수 없다. 너와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의 『유마경』 글처럼 지혜 있는 자의 瘦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修行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면 자연히 거울 속의 모습이 드러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수행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다.

大象不遊於兎徑,
大悟不拘於小節,
莫將管見謗蒼蒼。
未了吾今爲君決。

큰 코끼리는 토끼 길에서 노닐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조목에 구애되지 않기에
좁은 소견으로 하늘을 비방하지 말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여서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결단하였다.

마지막 부분이다. 『우바새계경』 권1에 유명한 三獸渡河의 비유가 나온다. “선남자야. 갠지스강을 건너는 三獸와 같다. 三獸란 토끼, 말, 香象이다. 토끼는 밀바닥에 닿지 못하고 물에 떠서 건너간다. 말은 밀바닥에 닿는 경우도 있고 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코끼리는 밀바닥을 사무쳐 다하여 건너간다.” 大道를 가는 자는 오솔길을 돌아봐서는 안 되며, 管見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永嘉玄覺은 “그대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대를 위해 설해주겠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첫머리에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에 대한 對句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

〈 다음호에 계속 〉



화엄반 스님들께

여름의 물씬 느껴지는 텁고 습한 열기 속에는 열정히 생활하는 대중스님
모두를 응원합니다

대중스님들께

원두반 야채가게 편지로 첫인사를 드리게 된
사집반입니다. 올타리 밖에서 주로 저희가 밭에 드디어 저희가 밭을 딛고 흙속에서 작물을 손수 키우는 원두반이 되었습니다. 재배 시작부터 수확까지 저희 원두반 작은 이야기 들어주시겠습니까?

원두반 칫철.

모종을 심고 초록빛 새순이 돋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호미질 몇 번의 다독거림만으로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아기 모종들에게 외쳤습니다. “옴 아마라 겸제이니 사바하!”

길고 넓은 봄체로 자라날 호박, 오이, 가지, 고추에겐 잡초로 놀리거나 영양분이 빠기지 않도록 고랑마다 비닐 옷을 입혀주고, 온실에서 조심스레 키운 아기배추씨는 여린 쌈을 틔운 뒤, 넓은 고랑으로 이사했습니다. 무럭무럭 키가 큰 작물은 지지대를 세워주고, 행여 잡초로 숨통이 막힐까 열심히 풀도 빼어주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추이만큼 운문사 밭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햇살과 바람, 그리고 원두반이 함께 키운 아기 모종들이 멋진 채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세운 지지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홀쭉 큰 더덕, 마치 커다란 꽃봉오리처럼 녹색 빛을 띤 채 한 고랑 가득한 양배추, 작은 쌈에서 어느새 홀륭한 쌈 채소로 털바꿈한 상추, 맛있는 국거리의 최고봉인 근대와 아욱, 지지대를 타고 또 타고 가득한 넝쿨 넘어 주렁주렁 열매를 달고 있는 호박과 오이, 뿌리를 든든히 붙잡고 흙속에서 건강하게 숨쉬고 있는 동글이 감자, 일렬종대로 반듯한 자태를 세운 채, 작은 하얀 꽃 사이로 기다랗고 파란 봄체를 옹기종기 달고 있는 고추들…….

저희의 정성과 땀방울로 처음 수확한 채소들을 대중스님들께 선물합니다. 대중스님 여러분! 운문사의 식탁이 가득해질 만큼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게 될 운문사 채소가게의 채소들을 계속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싱싱함과 정성을 담아 대중스님께 선사하겠습니다.

사집반 일동 올림

* 이 편지는 운문사 밭에서 대중의 채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집반스님들이 첫 수확물을 대중스님들에게 돌리며 원두비 찬조금을 받을 때 쓴 편지입니다. 기재된 편지는 18통의 편지 중 화엄반스님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선정 / 운문승가대학교 상용의례 강사

따뜻하고 화창한 날 오후 개울가에 가서 물 속을 들여다본 일이 있다. 물 속은 바위, 나뭇잎, 흙, 돌멩이, 물고기 등 수많은 생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왜냐하면 ‘위로 아래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은 스스로 헤엄치는 공간만을 볼 수 있을 뿐, 물 밖의 세상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또한 물 속만 보고 살다가 물 속에서 죽어야 하는 생물인 그 물고기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스스로를 뒤돌아봐도 나 잘났다는 마음에 신나게 살고 있지만 나를 궤뚫어 볼 수 있는 누군가는 나를 물고기 보듯 웃으며 쳐다볼 것 아니겠는가! 이렇듯 남이 나의 실체를 궤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TV를 보면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간혹 볼 수가 있다. 부모자식, 형제, 부부 등등 여러 친족관계를 만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선다. 얼핏 보면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출연한 것같이 보인다. 언제 헤어졌으며, 무슨 기억이 있으며, 꼭 만나고 싶다는 등등…….

대부분 나오는 사람만 다를 뿐 목적과 내용은 “만나고 싶다.”이다. 그런데 어째서, 왜 만나고 싶고 만나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는 사람은 한명도 못 봤다. “무척이나 그립고 보고 싶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하며 심지어 대성통곡까지 한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는 관심도 없다.

어떤 출연자 중에는 별 감동 없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좋다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뿐이다. 그 중 어느 한 사람도 “과거에 무슨 인연으로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헤어져 보니 그 아픔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헤어진 이후로 만남과 헤어짐의 아픔과 허무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든 좋은 인연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살고 있든 만날 때까지 맘 편히 잘 살길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헤어진다. 그것이 친족이든 친족이 아니든 간에……. 문제는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헤어지고 싶지 않은 대상과 헤어진 후,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헤어진 사람을 찾기에 앞서 그동안 같이 살아온 다른 사람과 살면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찰에서 흔히 있는 49재를 보면 영가의 죽음에 참석자가 대성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슬픔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가와 전혀 상관없는 각자의 감정, 즉 본인이 살아온 삶의 한풀이나 또는 각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걱정에 의한 눈물인 경우가 더 많다.

고인故人을 잊은 슬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단계 더 내려가보면 각각의 인연에 따라 생겼던,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던 행복한, 안타까운, 섭섭한, 미안한 일 등의 소소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대성통곡의 안에는 그런 것들을 고인故人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떠들썩했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걱정하고 위한다고 떠들고, 칼럼을 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큰소리쳤으나 정작 본인의 욕심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소홀했다. 또한 그 사건을 가지고 윤창중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큰소리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욕망으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존재들은 윤창중처럼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득 오래전 몇 명의 스님들이 어떤 스님을 비난하며 했던 말이 생각난다. 어떤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 자식이 있었는데 평생 자식을 만나지도 않고 살아왔다. 이 스님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스님들이 모여 앉아 말하기를 “자기 자식 버리고 와서 무슨 성불인가!”라고 혐담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자식까지 버려가며 출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출가를 선택했을까?

승려는 생사生死의 고리를 뛰어넘기 원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승려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사고四苦와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등의 고통이 싫어 출가한다고 했을 때, 그 출가자의 자식이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자식은 평생 남에게 고아 아닌 고아로서 상처받으며 살아야 한다. 평생을 가족에 대한 책무도 하지 않고, 자식의 마음에는 암처럼 썩은, 가슴 아픈 지옥을 주면서 스스로 아무리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남에게 보시와 자비를 주장한들 뻔뻔스러운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

삼륜三輪이 청정清淨하지 못하면 올바른 보시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괴롭히면서까지 얻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행복에는 욕망이 항상 붙어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버린다면 당연히 욕망도 사라지게 된다. 행복도 욕망도 사라지면 단순한 즐거움만 남게 되고, 마음이 져절로 상쾌해진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 순간 거침없이 그 행복을 버리라 말하고 싶다. ♪

온전한 하나 됨의 귀결 – 미국 내 다양한 종교 간 소통의 현장을 둘러보고 –

운성 /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동문 42회)

창가에 내린 햇살이 장엄하다. 저 태양은 늘 같은 자리건만, 어떤 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낮추어 알라를 찬탄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간증하며, 또 다른 이는 태양 너머에 가려진 달빛을 읽어내며 사물의 공空함과 무상無常함을 통찰해낸다. 독일의 종교학자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가 왜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의 종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 부르짖었는지, 저 태양을 겨안으면 알게 될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멀리 석양에 물든 모스크가 가까워 온다. 9·11사건으로 과격테러분자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그들이지만, 어디에나 급진과 온건은 섞여 있게 마련인 것을. “We cannot imagine God. God exists as formless(우리는 신을 형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은 무형으로 존재합니다).” 흑인출신 이맘(이슬람교 성직자 호칭)의 명쾌한 설명대로 교회 안 어디에도 신상을 찾을 수 없던 이슬람교 사원 Dar Al Hijrah의 기도실. 편안히 앉거나 심지어는 드러누워서, 저마다의 ‘무형無形의 신’과 자유롭게 만나고 있던 무슬림들의 Arkan-al-Islam(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6가지 영적 기둥). 상대의 종교를 따지지 않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 주고자 먹거리 포장에 한창이던 장난기 그득한 무슬림 아이들. 그 까만 눈동자 속을 들여다보며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과 투명함을 호흡했다.



주말에는 교회를, 수요일에는 참선모임에 나오는 미국인들



교회를 개조한 일본전센터 외벽 예수님이 성상 위에 앉아 우리의 법담을 엿듣던 비둘기 한 마리

다음날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려는 듯 영어구사가 잘 안 되는 한 성직자가 커다란 사원을 혼자서 냉그러니 지키고 있는 시크교 사원을 돌아보며 마치 대다수의 미국 내 한국사찰들의 현실을 만난 듯 쓸쓸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인간의 온갖 욕망조차 신성한 신의 세계로 품어내고 봇나조차도 자신의 신들 중 한 분으로 끌어들여버린 그들, 우린 힌두교 사원 Durga Temple의 문을 두드려 보았다. 친절한 성직자들은 우리의 손을 잡아끌며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는 듯 복잡하고 화려한 신전들 속으로 끌고 다녔지만, 공교롭게도 ‘만물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여지없이 갈무리시켜 주시던 선사들의 죽비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2,600여 년 전, 아직 ‘있음’에 물든 모든 체험들을 뒤로 하고 홀로 설산행을 택해야만 했던 인도의 청년 싯다르타도 어쩜 이런 심경이었을까? 한국에서 불교TV를 틀면 인내심을 시험하듯 계속되던 사찰 광고들, 문득 그 번거롭던 감상이 이 먼 미국 땅 힌두사원에서 겹쳐오는 건 또 무슨 조화인지…….

종교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표충종교인과 심충종교인을 나누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표충 즉 겹데기로만 믿어 갈등을 일으키지만, 심충적인 믿음으로 도달하는 신비로운 본질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교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발견이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오강남 성해영 공저『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두 딸이 졸업했다는 워싱턴DC Sidwell Friends School에서 만난 기독교 신비주의神秘主義(mysticism)의 한 형태인 퀘이커교 모임을 참관하며, 우리는 심충의 ‘그 무엇’을 고민했다. Quaker란 ‘온전히 하나 된 신 앞에 떨림’이란 뜻으로, 1650년대 영국 George Fox가 기독교에 명상수행을 겸비한 신행 운동을 주창하며 창시한 종교다. 신과 나 사이에는 메시아가 필요치 않고, 오직 명상예배를 통해 그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임재任在하시는 신성神性(Divine nature)으로서의 God와 ‘하나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서로를 Friends라 부르며 따로 성직자를 두지 않고 주일마다 누구나 돌아가며 목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도목적이 아닌 세상의 진보가 곧 신과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실현 등 공공선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자신들의 모태신앙 전통에 불교 특히 참선을 접목시켜 일본 조동종의 종조 도오겐 선사(道元, 1200~1253)의 가르침에 의지해 20여 년씩 참선수행을 해오고 있는 이른바 Interfaith Committee of Zen Sangha를 비롯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권위를 내려놓고 다른 종교들이 법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활짝 열어 놓은 대단히 배포가 크신 국립 카톨릭 대성당 신부님들의 우리 스님들을 위한 특별미사. 점점 줄어드는 신도 수로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곳곳의 교회와 성당들이 불교 사원이나 명상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종교현실임을 안다면, 변화된 현실을 잘 수용하되 도리어 자신의 색깔을 더욱 또렷이 드러내고 있는 신부님들의 지혜로운 선택에 다시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실제 문 닫은 교회를 개조해 참선모임을 이끌고 있던 한 일본 사원에서 만난, 외벽에 조각된 예수님의

성상을 없애지 않아 자칫 교회인 줄 착각하겠다는 우문에 대해 “보여지는 형상은 그저 형상일 뿐이니까요.”라던 독일인 재가법사(Priest)의 명쾌한 현답을 어찌 잊을까. 짤막한 검정가사 위에 스승에게서 내려받은 수계증을 분신처럼 걸고 다니던 중년의 머리카락 달린 선사禪師. 예수님 어깨 위로 날아와 앉은 작은 새 한 마리, 우리의 대화를 엿듣곤 웃는 소리,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



진보신학의 명문 뉴욕 유니언신학대 폴 니터 교수님 정현경 교수님

오후 한나절은 진제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종정)께서 다녀가신 후 국내에도 알려진 바 있는 진보적 해방신학의 명문 뉴욕 Union 신학대학에서 보내기로 했다. 그곳엔 저서 『Without Buddha, I couldn't be a Christian(부처님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을 통해 기독교로부터 불교로 이어진 자신의 영적 여행을 고스란히 고백하신 분, 동자승처럼 천진한 그 미소 너머엔, 포기할래야 할 수 없는 민중들의 고뇌를 껴안고서 희끗한 머릿결 따라 간절한 보리심 물결을 치던 멋진 노신사 폴 니터Paul F. Knitter 교수님이,

그 곁엔 남다른 미적 감각을 날것으로 드러내며 당당히 서서 아시아인 최초의 유니언 신학대 종신교수이자 신학자, 여성학자, 참선수행자, 그리고 그 어떤 명성보다도 진실한 ‘한 인간’이고파 지구별이 살아 있는 한 영영 길들여지길 거부하며 뜨겁게 타오를 사람 정현경 교수님이 계셨다. 그들과 나눈 제 종교들을 아우른 영적 여행기, 그리고 깨달음의 역사적 실천에 관한 진솔한 대담.

늘 꿈꾸어 오던 수행공동체의 다양한 모습들! 인류 종교사의 획을 그을, 이 조용하지만 장중한 물결에 한 발 살짝 적신 듯 설렌다.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의 분별에 매이길 거부하고 ‘심층의 본질’을 궁구코자, 불교가 도달한 지 겨우 100년도 채 안 된 이 땅에서, 가장 미국적이라 할 만한 자유롭고 실험적인 종교간의 소통. 이를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끌어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우린 이 ‘쌍방소통의 묘미’를 결코 가벼이 보아 넘겨선 안 될 것이다.

퀘이커교도 미팅시간이었다. 고요히 일어선 내 앞자리 한 중년의 여인은 슬픔이 고인 목소리로 friend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남편이 재발한 폐암으로 다시 투병하게 되었어요. 여러 벗 한 분 한 분의 빛(Light)을 제 남편에게 좀 비춰 주시겠어요!” 가녀린 그녀의 떨림(quake)이 작은 교회당을 공명한다. 텅 빈 허공 그 끄트머리, ‘신성의 빛(Divine nature's Light)’을 쬐어 서로의 굽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살이 돋게 하는 ‘실천적 God의 협존’을 본다. “우리는 신을 없애기 위해 기도한다(We pray to get rid of God)!”라던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독일의 로마 카톨릭 신비 사상가, 1260~1327)의 강렬한 법문이 붉은 석양에 젖어 낮게 낮게 내리는 2012년 1월 워싱턴의 그 저녁녘, 미국 한가운데서 문득 시간을 잃어버렸다. ●

가릉빈가의 음성

☆一心奉請 實相離名 法身無跡 從緣隱現 若 鏡像之有無

일심봉청 실상이명 법신무적 종연은현 약 경상자유무

幻來何難 ☆一心奉請 生緣已盡 大明我遷 旣作黃泉之客

환래하난 일심봉청 생연이진 대명야천 기작황천지객

目 ☆一心奉請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목 일심봉청 생종하처래 사향하처거 생야일편부운기

生死去來亦如然

생사거래역여연

今此至誠 第當

금차지성 제당

逝 先亡父母 多生師長 祖姑祖母祖上 承佛威光 來詣香檀 受霑法供

서 선망부모 다생사장 조고조모조상 승불위광 내예향단 수첩법공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진리의 참모습은 이름을 여의었고, 진리의 法身은

자취가 없지만, 인연따라 숨었다 나타났다 함은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가 있다가 없다가 하

는 것과 같고, 업을 죄아 오르락내리락함은 우물의 두레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과도 같습

니다. 묘한 변화가 헤아릴 수 없거늘 잠시 돌아옴에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세상의 인연 이미 다하시고 삶의 목숨 벌써 바뀌시니, 어느덧

황천의 나그네가 되고 불현듯 추

천을 받는 혼이

되시니 그 모습과 음성이 눈가에

이른거리고 귀에

생생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오셨으며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며 돌아

가는 것 또한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집입니다. 뜯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듯이 나고 죽고

오고 감도 또한 그러합니다. 한 물건은 언제나 떳떳

이 드러나 있어 맑고 맑아 나고

죽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지극한 정성으로 00재

를 거행하오니 영가님과 주변에

돌아가신 모든 영가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위덕과 광명

을 받으시려 이 법의 자리에 오

셔서 법공양을 받으십시오. ■■■■■

受業昇沈 如井輪之高下 妙變莫測

수업승침 여정륜지고하 묘변막측

已爲追薦之魂 彷彿形容 依俙面

이위추천지흔 방불형용 의희면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獨有一物常獨露 漢然不隨於生死

독유일물상독로 담연불수어생사

○○齋 之辰 薦魂齋者 靈駕亦爲 上

○○재 지신 천호재자 영가역위 상

* 영가청靈駕請 : 영가청靈駕請이란 천도의식 가운데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이 시식이나 영반에서 영가에게 무상의 도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법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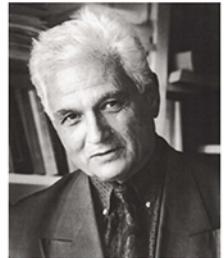


우리는 보시다운 보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가?

강신주 / 철학자



선물이 존재하려면, 어떤 상호 관계, 반환, 교환, 대응 선물, 부채 의식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타인이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것을 내게 다시 돌려 주거나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거나, 또 반드시 돌려 주어야만 한다면, 나와 타인 사이에는 어떤 선물도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반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상당히 긴 유예 조건들을 계산하여 이루어지든 간에 관계없이 말이다. 특히 타인이 내게 동일한 것을 직접 되돌려주는 경우에 이 점은 훨씬 더 분명해진다.



– 데리다(Jacques Derrida), 「주어진 시간(Donner le temps)」 –

불교佛教라는 말은 부처의 가르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자가 강조되면 불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처럼 초월자를 숭배하는 초월종교라는 인상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나 석가모니를 믿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나 신이 될 수는 없지만, 불교도들은 치열한 노력으로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 BC563?~483?)와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까닭을 분명히 하려면 후자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찰을 떠날 때 스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던지는 인사말이 무의미해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성불成佛하세요!” 성불, 그러니까 부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보다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부처가 되는 데 유용한 도움, 그러니까 방편方便(upāya)이라는 점에서만 그렇습니다. 결국, 부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 하는 옛목과도 같은 것이지요.

일체의 집착과 편견을 제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주인공으로 산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어서 일종의 피안으로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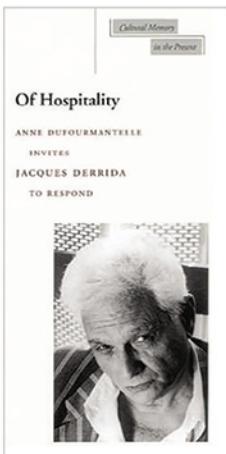
부처가 되는 치열한 수행을 불교에서는 바라밀波羅蜜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자어는 파라미타pāramitā라는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읊긴 것입니다. 파라미타라는 글자는 파람pāram과 이타itā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람’이 ‘저 멀리’, 혹은 ‘저 너머’를 뜻한다면, ‘이타’는 ‘도달한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멀고 험하게만 보이는 부처가 되는 길을 꾹꾹하게 걸어서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미타, 즉 바라밀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여섯 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그리고 지혜智慧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걷는다면, 우리도 싯다르타가 도달한 열반涅槃(Nirvāṇa)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여섯 가지 방법, 여섯 바라밀은 철학적으로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지계’, 온갖 모욕에도 원한을 품지 않으려는 ‘인욕’, 악을 제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정진’, 마음을 응시하는 ‘선정’,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 다섯 가지는 수행자의 치열한 자기 수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타자에게 재물이나 지혜를 나누어주는 ‘보시’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 주체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면, ‘보시’는 주체가 내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타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보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바라밀은 출가하여 스님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섯 가지 바라밀 중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보시’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자선 행위와도 비슷한 보시가 여섯 바라밀 중 첫 번째로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워서일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해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소중한 무엇인가를 줄 때,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다면, 행복은 놀랍게도 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까요. 우리는 생면부지의 남이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준 것으로 행복한 것은 못 보겠다는 거지요. 바로 여기에 보시라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의지를 수반하는 수행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보시이기 때문이지요. 보시에 전제되어 있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가 노년에 강조했던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타자에 대한 보시는 타자에 대한 환대에 다름 아니니까요.

데리다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절대적인 환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즉 나는 내 방을 열어야 하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 미지의 타자, 그리고 익명의 타자에게 내 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오도록 하고, 그들이 도착하도록 하며,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자리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이런 절대적인 환대에서 우리는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아서도 안 된다.” 이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출간된 『환대에 대하여(Of Hospitality)』라는 책에 등장하는 구절



〈 환대에 대하여 〉

입니다. 절대적인 환대라는 말로 테리다는 우리가 타자에게 베푸는 환대가 사실 제대로 된 환대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환대, 즉 절대적인 환대의 조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격한 것입니다. 나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테리다는 내 방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환대란 그렇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남도 아닌 친척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안전한 은신처가 침탈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내 방에서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적대심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혹은 불편하다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친척들이 떠나는 날에는 다시 내 방을 찾은 것 같아서 여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나마 우리는 그들이 하루 속히 떠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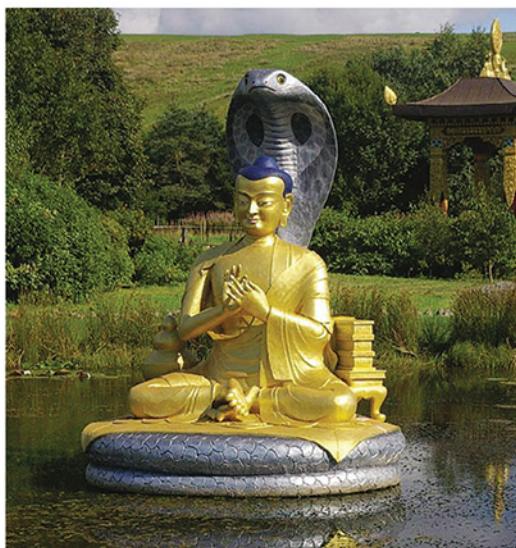
무엇이 이렇게 환대를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방이라는 집요한 소유 의식입니다. 친척들에게 기꺼이 방을 빌려주었을 때에도, 그들의 칭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속상할 것입니다. 내 방을 주면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대신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좋은 평판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방의 소유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척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정한 환대가 힘드니, 나와 전혀 무관한 타자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자비慈悲(karuna)라는 두 글자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환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니면 생면부지의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환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묵은 소유 의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사랑의 논리는 소유의 논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소유에의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에게서 사랑의 힘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친구가 배가 고립니다. 지금 내게는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배고픈 친구에게 건네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빵의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만약 자기 빵을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우리는 무척 괴로워할 겁니다. 빵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만, 그래도 친구의 배고픔을 모른 척할 수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는 동력이기 때문이지요.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론가는 나가르주나Nāgārjuna(150? ~ 250?), 그러니까 용수龍樹, 그의 이론은 지금도 『중론中論(Madhyamaka-śāstra)』이란 난해한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 이론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진수를 맛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강조했던 공空(Sūnyatā)이란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용수의 속내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은 ‘불변하는 자아’와 같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마주침으로 이루어지기에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수가 이렇게 공을 강조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사랑과 자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집요한 소유 의지를 해체하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젠가 인연이 끝나서



자신도 소멸하리라는 것을 안다면, 소유가 얼마나 덧없는 행위인지 깨달을 테니까 말입니다. 말 그대로 ‘저승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려나?’ 뭐 이런 자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입니다. “자아가 없는데 어찌 자아의 소유가 있을 것인가. 자아와 자아의 소유라는 생각을 진정 시키면, 우리는 ‘나’나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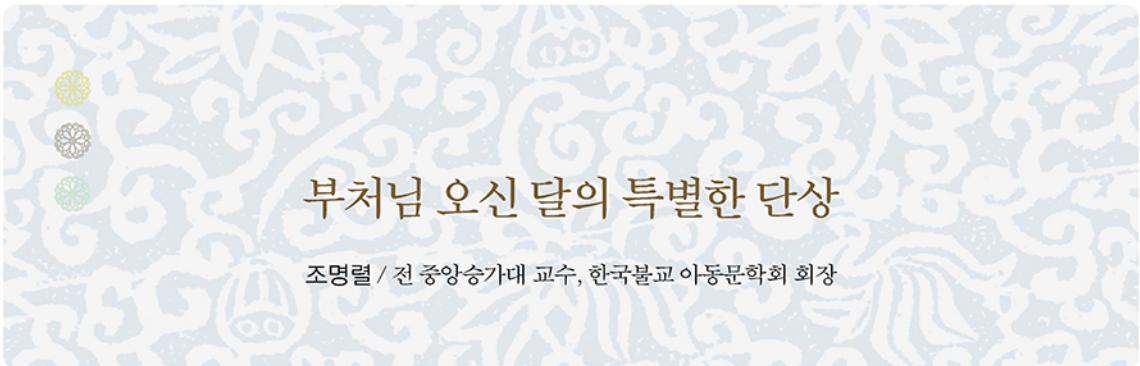


〈 나기르주나의 불상 〉

〈 중론 첫 페이지 〉

실천적으로 용수는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집요한 소유 의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소유 의지를 완화, 혹은 제거하려는 이유는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공은 자비와 사랑에 이르도록 의도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法頂(1932~2010) 스님도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무소유無所有’라는 말에서 ‘무無’라는 글자를 ‘없다’고 좁혀서 해석하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없앤다’는 동사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타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보시가 왜 여섯 가지 바라밀 중 첫 번째로 오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사실 제대로 보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보살을 넘어서 부처가 된 것입니다. 소유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보시를 실천할 수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부처가 되는 저 먼 길에 도착했는지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타자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의 여부로, 우리는 자신이 지금 부처에 이르는 길 어디쯤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



단상 1. Wake Up

부처님 오신 달이 있는 여름을 맞이해서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다. 첫째는 지난 5월 8일 틱낫한 스님의 법문을 청법한 것이다. 책을 통해서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적은 많지만 직접 친견하여 법문을 들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틱낫한 스님께서 중앙승가대학에 오셨을 때였다. 그날 강의는 없었지만, 일찍 학교에 가서 청법했다. 그때 스님은 자연과 둘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깊은 감동을 안겨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학교에 귀한 분이 오시면 기념촬영을 한다. 웬만한 자리는 살며시 빠지는 것이 내 일상이었는데 그날 나는 일부러 사진촬영에 가담했다. 그때의 생각은 언젠가 시간을 만들어 프랑스 플럼빌리지를 방문해서 단 며칠이라도 스님의 지도 아래 공동체수행을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플럼빌리지를 방문하게 될 때 그 사진을 들고 가려고 사진기사께 부탁해서 개인보관용을 뽑아서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지난 8, 9일 이를 동안 학인스님들과 공동체수행의 실제를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

모든 진행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설법을 받들 기회를 얻어 학교에 갔다. 4층 법당에 반가운 법연들이 만장했는데 모두가 조용히 스님 말씀에 마음을 모았다. “Wake Up”이란 명제로 진행되는 수행프로그램 이었다. 멀리서 느껴지는 스님의 응시력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10여 년 지난 세월이 마치 어제인 것처럼 외모도 그대로인 것 같았다. 스님 일행 중에 같이 온 노 비구니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는 그 비구니 스님이 궁금했다. 마침 점심공양 때 그 노 비구니스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역시 그 스님께서도 10여 년 전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계시는 것 같았다.

지금도 스님 모습을 생각하면 의구심이 많이 생긴다. 일본의 사카무라 심민(坂村眞民)의 “사람의 뒷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안다.”는 수필이 지금도 마음에 생생한데 옛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스님을 통해서 나는 틱낫한 스님의 수행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법문의 내용은 “찻잔 위에 있는 구름을 보고 미소지어라.”를 비롯해서 네 가지 공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서양의 수행자를 위한 현대적인 공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았다. 찻잔 위의 구름을 보고 미소

짓는 의미를 찾아본다는 공안을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다. 찻잔 위에 흐르는 구름을 찾는 응시와 그리고 미소지울 수 있는 여유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았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두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생각된다.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자연과 같은 틱낫한 스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편안하게 앉고 서고 걷기를 행복한 느낌으로 수행하면서 먼저 내 안의 고통을 인식 치유하고 자애를 담아서 대화하면 옆 사람의 고통도 치유된다는 수행법을 말씀하시며 염치경의 수행법 참조를 부탁했다. 2시간 가까운 법문이고요 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평범함 속의 비범이란 단어에 나는 일찍이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감히 나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가꾸려고 소망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명제로 남아 있다.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가 함께 어울리고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발원하면서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 “Wake Up”의 의미를 찾고 싶다.

단상 2. 찬란한 연등 행렬

5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연등 행렬을 관람했다. 동국대학에서 출발하여 종로를 지나가는 도중에서 선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관등했다. 오색의 다양한 연등 모양은 감탄의 연속이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무명을 밝히는 연등의 광명이 서울 하늘을 밝혀 무량광의 연화세계를 열어 환희가 넘치는 축제의 절정이었다.

소프트화 된 연등의 발전에 감탄하고 그를 관등하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환희와 법열로 종로거리를 가득 채운 것 같았다. 빛자의 일등에서 진실된 신앙심을 점화해온 연등의 신화적 전설이 이제는 상징적인 모습을 한껏 발휘하면서 신앙심을 재점화시켜 주는 것같이 심신이 무한하게 힐링되었다.

연등 행렬에 참석한 많은 불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한 수행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대승의 수행법인 육바라밀 중 제일 바라밀로 전하는 보시바라밀은 대타對他를 향한 것이고 다른 다섯 바라밀은 자신의 수행을 위한 수행법이다. 남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라고 이해하는데 한복 곱게 차려입고, 또는 단체복을 입고 연등 들고 염불하면서 종로거리를 행진하는 불자들의 보시하는 모습을 관상하면서 깊이 감사를 드리기도 했다.

복족족 혜족족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발원하고 발원하면서 연등축제장을 떠났다. 2013년 여름은 정녕 환희심 가득했던 시간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여담 / 사미니과

대중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치문 첫 철을 보내고, 이제 조금씩 적응하며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치문반 백씨 여담입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덕 높으신 어른스님, 엄하면서도 자상한 상반스님들, 그리고 치문 도반스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중 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 마음!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놈에게 늘 끌려 다니느라 저는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 어른스님들께서 강원 가면 “늦깎이다. 백씨일거다.”라는 말씀에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반의 백씨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백씨는 모든 반 스님보다 더 하심하고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들은 저를 부자유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 첫 철, 백씨 역할과 반장 소임이 언제부터인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반스님들과 부딪히는 순간, 상반스님께 걱정 듣는 순간, 순간순간이 커다란 후회로 밀려들었습니다. 더구나 걱정을 들으면 그때뿐,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잘못을 되풀이할 때면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저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뜻대로 몸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린 것일까요? 마음이란 이놈이 수없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그럽기는커녕 더욱 옹졸해지고, 도반스님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는 모난 행동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도밖에 마음을 쓰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저 자신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왜 대자유인이 되고자 출가했으면서 스스로를 속박의 궁지로 몰고 있는지. 매일 조석예불 때마다 부처님 전에 오체투지하며 “삼계의 도사이신 부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끝에 다다랐던 것일까요. 제 마음 속엔 “치문반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무력무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락에 올라가서 “난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지금 나가는 것이 나와 반들, 대중스님들을 위해 최선이야.”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마음 바꾸고 같이 살아봐요.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말을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머리는 지금의 제 모습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면 쉬울 것 같은 이 안일한 마음을 품고 도망칠 궁리를 했던 것은 아닐까?” 한 번 의문이 들자 다른 궁금증들도 슬며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는 것처럼 상대를 이해하였던가?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만큼 우리 반 스님들도 위로받고 싶다는 것을 받아들였던가?

물음이 많아질수록 부끄러움도 커져 갔습니다. ‘내려놓자! 올라오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 듣는 건 마음공부 하라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고 하심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큰 공부인 거야!’ 오랫동안 장막에 가려서 어두웠던 시야가 점차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만인 것을. 그 고난을 극복해 낼 방법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해결책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 우매함에 멋쩍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의지! 바로 이것이 저를 출가하게 만들었음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 속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듯,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강원에 오기 전, 은사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옛날 어느 절에서 발우공양을 할 때, 큰스님이 보시니 한 동자승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더랍니다. 공양 후에 그 동자승을 불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아무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물어보니 대중이 먹을 국에 쥐가 빠져서 동자승이 그 쥐를 먹었다는 겁니다. 대중을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속에 살면서 바다처럼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묵묵히 행하라는 은사스님의 큰 뜻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함께 하시는 대중스님!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현명함을 발원하며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정진여일하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



| 제34회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 여기 보세요



여름불교학교 대표자 선서

스님 말씀에 합장하고 풍긋

저 어때요^^



천진동자님들~ 찰칵!



신나는 물놀이~아이 시원해



소원 적은 풍등 날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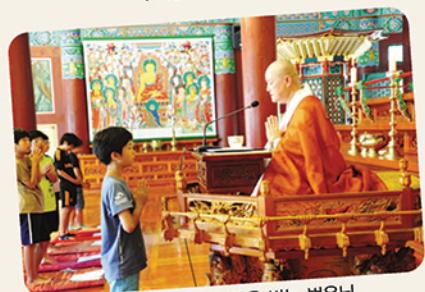
부처님 너무 즐려요



나를 찾아서 이뭐꼬…



느름하게 계를 받는 법우님



주지스님께 수계증을 받는 법우님



하늘엔 무엇이 있을꼬



스님들이 정성들여 만든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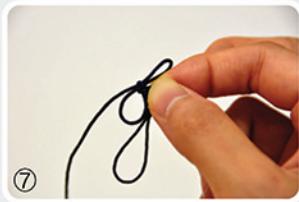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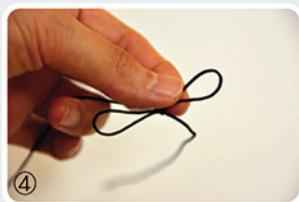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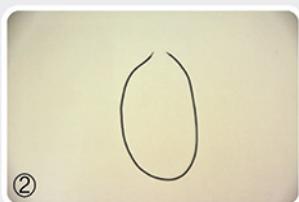
여름고양이 탄생

함께하는 전통매듭 ②

사진의 매듭은 금강 매듭과 생쪽 매듭, 짚신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 봄호에 금강 매듭을 소개했고 이번 125 여름호에서는 생쪽 매듭을 소개하겠습니다.

● 생쪽 매듭

준비물 : 매듭실, 라이터, 가위



- 
1. 매듭실을 원하는 길이만큼 준비합니다.
 2. 매듭실의 끝을 불로 살짝 지진 다음 뾰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3. 124 봄호에서 배운 금강 매듭을 맺어줍니다.
 4. 금강 매듭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쪽 실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5. 오른쪽 실로 만들어 놓은 고리 옆으로 감아서 당겨줍니다.
 6. 만들어진 고리 안으로 아래에 있는 왼쪽 실을 고리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7. 아래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겨 옆으로 누운 원을 잡아줍니다.
 8.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두 실에 만들어 놓은 고리를 씌운 뒤
오른쪽 실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킵니다.
 9. 그대로 내려놓으면 여러 가지 실이 엮어져 있습니다.
 10. 손가락으로 양쪽 동그란 귀를 잡으면서 가운데 '井'자를 만들어 줍니다.
 11. 사방의 끈을 조절하여 매듭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12. 생쪽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 생쪽 매듭의 '생쪽'은 생강 쪽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운데가 '井'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정자 매듭이라고도 하며
기쁨, 환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명상과 지관문止觀門 ②

정행 / 대교과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명상수행

- 1) '선禪'을 의미한다.
불교 명상은 선禪수행이다
- 2) 선禪수행의 방법
- 3) 불교 수행의 대표는 지止와 관觀이다

2. 만트라Mantra수행

- 1) 가장 쉽고 빠른 지관 수행은 만트라 Mantra 주력呪力이다
- 2) 만트라Mantra의 의미
- 3) 만트라(진언眞言 또는 주력呪力)의 힘으로 삼매에 들어가기
- 4)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진언 선택하기

3. 원효 스님의 자관문止觀門

- 1) 신심信心을 완성하는 다섯 가지 수행
- 2) 어떻게 지관문止觀門을 수행하는가?

III. 결 론

2) 만트라Mantra의 의미

산스크리트어인 만트라는 한자로는 진언眞言, 신주神呪, 주呪, 주문呪文, 주력呪力, 찬가讚歌 등을 나타내는 말이며, 밀교에서는 만트라를 다라니라고 부른다. 흔히 범문梵文의 짧은 구절을 진언眞言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구절을 다라니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천수경에 신묘장구대다라니와 12개의 진언이 나오고, 그 밖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입으로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나반존자', '지장보살' 등과 그리고 광명 진언, 관세음보살 42주가 있다.

만트라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제불諸佛을 상징하는 산스크리트 문자나 부처님에 대한 찬가나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특정한 말을 가리킨다. 범문梵文을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의 전체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밀어密語라 하여 법을 전승하는 사람 외에는 비밀히 하는 뜻이 있다. 또 어떤 우주의 힘과 봉다의 경지를 드러내는 힘을 지닌 일련의 음절로서, 이것을 반복할 때 엄청난 힘이 나타난다고 한다.

만트라를 외우는 사람은 한량없는 공덕과 복덕을 얻으며 반복하여 외우고, 독창讚唱하고 관상觀想¹⁾하면 모든 마장으로부터의 보호와 선정의 힘이 길러지며 번뇌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다고 한다.

3) 만트라(진언眞言 또는 주력呪力)의 힘으로 삼매에 들어가기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바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을 주력呪力수행이라고 한다. 그냥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부르고 손끝으로 염주나 단주를 돌리는 등 계속 끊임없이 진언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 스님도 『대승기신

론』에서 주력의 힘을 밝혔다.

“……신심信心을 성취할 수 있는 최고 간단한 승방편勝方便으로 ‘나무아미타불’ 6글자의 염불 삼매와 아미타불의 법신을 관관하는 16관법²⁾이 있다. 만약 사람이 오로지 서방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고자 원한다면 일심정념一心正念으로 ‘나무아미타불’ 6글자를 염念佛하라. 부처님의 진여에 있는 法身을 보고 늘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구품왕생九品往生의 바른 선정에 이르나니, 이는 뛰어난 인연의 힘 때문에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하 달라이 라마께서는 다음과 같이 만트라의 삼매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만트라’는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용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만트라의 ‘만慢’이란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識의 6식六識을 말한다. 곧 하열하고 범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만’은 진여지혜眞如智慧요 ‘트라’는 traya에서 온 것으로 중생들의 비심悲心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즉 만트라는 ‘공성을 증득하여 얻은 지혜와 대비심이 하나가 된 것’으로 지혜가 방편을 버리지 않고, 방편 또한 지혜를 저버리지 않음을 가리킨다.

만트라를 처음 할 때에는 각 구절을 번갈아 주

의를 집중하면서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빠르고 느리지 않은 똑같은 속도로 해야 한다. 만트라를 하는 동안 혼침이 온다고 느껴질 때는 소리를 관관하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염송하는 소리를 듣는 듯이 관상觀想한다. 그렇게 해 가다가 집중이 되면 오로지 고요한 가운데 만트라의 소리를 사유하면서 선정에 들어간다. 마음과 만트라의 소리까지도 다 잊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자관止觀삼매에 들게 된다. 삼매의 힘은 소리를 이용한 선정 상태에서 증장되지만 소리가 다 섭수한 후에 갖게 되는 상태에서 자관쌍운止觀雙運의 삼매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³⁾

4)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진언 선택하기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현재의 業은 쉽게 제어 되기에 스스로의 수행노력으로 능히 막을 수 있지 만 숙세의 습기는 제거하기가 어려워 반드시 신비한 주력의 힘인 신력神力を 빌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기만의 진언을 선택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입도록 노력해보자. 왕생집往生集⁴⁾은 아미타불 주력으로 극락왕생한 예를 많이 볼 수 있고,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영험을 경험하는 것은 광명진언과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 주력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만트라는 우리의 업력을 용해시키는데 그 위력이 가장 쉽고 빠르며 강력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트라 한 자 한 자가 부처

1) 관상념觀想念 : 「관무량수경」에서 말한 아미타불 극락국토의 의정장암依正莊嚴을 관조하는 16가지 관법을 말한다.

2) 16관법十六觀法 : 불교의 관법 가운데 하나, 극락세계를 위하여 극락세계를 관상觀想함을 뜻한다. 이 관법은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원효를 비롯한 많은 승려들이 이 16관법을 통하여 ‘정토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마음을 순화시키는 범주로 여겼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위제희 왕비에게 극락을 보여주고 그곳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한 것으로 차례대로 16가지를 관한다. 「해 → 물 → 땅 → 보배나무 → 연못의 8공덕수 → 보배누각 → 연화좌 부처님 → 금색상의 부처님 → 真身관 → 관세음보살 → 대세지보살 → 두루 생각하는普관 → 잡상관 → 上輩관 → 中輩관 → 下輩관」 등이다.

3) 「달라이 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호림출판사.

4) 운서 주광 역음, 「죽음너머 왕생집往生集」, 호미 출판사.

님을 나타내고 만트라를 염송함으로써 가슴과 목과 마음속의 카르마가 정화되어 마침내 자기 스스로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트라의 음률은 과학에 있어서 진동의 법칙과 같다. 소리에서 나오는 양쪽 진동수가 같으면 공명에 의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기 쉽게 된다고 한다.

진언 외우는 지관止觀수행으로 모두 부처님의 진동수와 하나가 되어 얼굴에 밝은 광명이 비치는 사람이 되어 보자.

3. 원효 스님의 지관문

1) 신심信心을 완성하는 다섯 가지 수행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삼보를 믿고 출가한 수행자들에게 신심을 증장시키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수행으로 5문五門을 제시했다. 다섯 가지 실천의 문은 첫째는 보시인 시문施門이며 둘째는 지계인 계문戒門이며 셋째는 인욕인 인문忍門이며 넷째는 정진인 전문進門이며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6바라밀의 교설敎說을 기초로 하여 재조직된 것이다.

문門이란 입구를 의미하고 수행에 의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며 완성되는 것을 뜻한다. 수행이 없으면 바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믿음은 연緣을 만나면 바로 후퇴하기 때문에 오문五門으로 믿음을 도와준다. 『화엄경』 제8품인 「현수보실품」에 이런 개송이 있다.

“信爲道元 功德母
增長一切諸善法
除滅一切諸疑惑
示現開發無上道

믿음은 바로 도道의 시작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선법을 증장시키고, 일체 의혹을 제거하여

최상의 도를 드러내고, 불도를 열어준다.”

믿음은 스라드하sraddha의 번역어로 원래 의미는 ‘마음을 맑게 하는 힘(心證淨)’이라고 한다. 즉 부처님을 굳게 믿으면 부처님의 청정성에 동화되어 이렇게 수승한 선善을 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동력인 믿음을 증장시키는 방편으로 지관수행의 문을 열어보자.

2) 어떻게 지관문止觀門을 수행하는가?

원효 스님은 “수행자는 오고 가며 앓고 눕는 삶 속의 모든 생활에서 모두 止와 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止와 觀은 서로 돋고 멀어질 수 없으니 만약 止와 观을 함께 닦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원효 스님의 지관수행문止觀修行門은 다음과 같다.

① 지止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선정을 이루어 모든 바깥 경계상이 그치면 분별할 바가 없기 때문에 ‘지止’라 하는 것이고 사마타관을 수순하는 뜻이다. 『기신론』의 止를 닦는 방법은 다른 수행 방법보다도 특수한 수행방법이다. 기식氣息에 의지하지 말고 몸의 부정관不淨觀, 백골관白骨觀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생각을 떠난 無念인 심일경성心一境性으로 무분별지인 근본지根本智로 진여삼매를 닦는 것이다. 마음이 不生不滅되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정신통일이 될 때가 진여삼매이다. 지止는 9심주九心住로 닦고 관觀은 4혜행四慧行으로 수행함을 밝힌다.

止수행인 선정을 닦을 때에 마음을 한 군데에 머물려 산란치 않게 하는 아홉 가지 지행止行이 9심주九心住다. 즉 마음을 거두어 순서대로 9단계를 거쳐 삼매에 드는 과정이다. 9가지 심주心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내주內住

바깥 경계로부터 반연되어 일어나는 산란

한 마음을 거두어 마음 안에 머무르게 한다.

ㄴ) 등주等住

거칠게 움직이던 최초의 번뇌에 묶인 마음을 內住로 거두어 들여 더 미세하게 치달리는 생각과 관념의 想까지 두루 거두어 마음 안에 전체적으로 머무르게 하기.

ㄷ) 안주安住

등주까지 거둬들인 마음이 잠깐 실념失念하여 밖으로 다시 산만해지면 또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 거두어 들여 경계에 안치安置함을 말함.

ㄹ) 근주近住

3단계까지 거두어들인 마음을 친근하게 하고 자주 뜻을 세워 그 고요한 마음을 가까이 머무르게 함.

ㅁ) 조순調順

모든 바깥 경계가 다 허물과 걱정임을 알아 4단계까지 거두어들인 고요한 마음을 따름.

ㅂ) 적정寂靜

5단계인 조순調順에 의해 조복시킨 생각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한 상태가 이어짐.

ㅅ) 최극적정最極寂靜

정念의 상태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짐.

ㅇ) 전주일취專住一趣

7단계인 정念으로 마음이 정진일여한 수행이 되고 공능功能의 작용도 있으며 定心이 오래 머물게 됨.

ㅈ) 등지等持

8단계의 전주일취의 모습으로 공능작용 없

이도 혼들리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행이 점점 맹렬하고 수순하여져 진여삼매에 들어간다고 함.

② 관觀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연생멸상’을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혼히 위빠사나 또는 비발사나라고도 한다. 세속 도리에 대한 지혜(佛智)로그 이치를 관하고 생멸문에 의해 모든 경계상을 분별하여 얻은 통찰지를 후득지後得智라 한다. 지행止行을 닦아 사마타인 등지를 얻으면 네 가지 닦아야 할 지혜인 관행觀行이 있다. 네 가지를 살펴보자.

ㄱ) 정사택正思擇

일체 모든 현상을 바르게 깊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는 것.

ㄴ) 최극사택最極思擇

다시 한번 정사택한 지혜로 가장 지극하게 사택함.

ㄷ) 주변심사周徧尋思

널리 빠짐없이 두루 통찰 지혜로 관찰하기.

ㄹ) 주변사찰周徧司察

심사尋思보다 더 세밀하게 통찰지로 사랑 분별하고 숙고하는 정신작용.

止는 6바라밀에서 定에 해당되고 觀은 慧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定도 지관에 통하고, 觀 또한 지관에 통하는 것이므로 원효 스님은 지관을 통합하고一心으로 숙달되면 止觀이 서로 수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止와 관觀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빨리 쉽게 보리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오직 선정인 지止만을 닦아 즐기면 곧 마음이 가라앉아 게으름을 일으키고 혼침하여 생기있게 일하는 활동력이 부족해진다. 또 여러 善行을 즐기지 않고 중생의 현

실을 보지 않아 대비심을 여의게 되니 반드시 觀을 닦아 무상無常, 무아無我, 고苦인 일체 法을 통찰하여 얻은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 중생에게 회향해야 한다.

③ 지관止觀 수행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오로지 전일專一한 마음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⁵⁾를 닦아 정진하는 者는 현재에 마땅히 열 가지 이익을 얻는다고 경전에서는 말한다.

첫째,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들로부터 간절히 보호받게 된다.

둘째, 온갖 마구니와 악귀를 능히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셋째, 95가지 외도인 나쁜 견해와 귀신으로부터 미혹되거나 어지럽혀지지 않게 된다.

넷째, 심히 깊은 법을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고, 중죄업장도 점점 얇어지게 된다.

다섯째, 일체의 의심과 온갖 사악한 관찰사유(覺觀)가 멀하게 된다.

여섯째, 여래의 경계에서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일곱째, 근심과 회한悔恨이 멀리 떠나게 되고 생사生死 중에 있어서도 용맹스럽고 비겁하지 않게 된다.

여덟째, 그 마음이 유화하고 교만을 버리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괴롭혀지지 않게 된다.

아홉째, 비록 아직 선정(定)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떠한 경계에 있어서도 바로 번뇌를 능히 줄일 수 있고 세간을 즐기지 않게 된다.

열째, 만약 삼매를 얻게 되면 외연外緣의 온갖 소리에도 놀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불교의 명상인 선禪수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부처님과 모든 스승님들의 가르침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무상과 이 몸이 카르마의 덩어리임을 깨달아 수순하고 얻기 어려운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의 몸을 받아서 지관 수행으로 선정 한번 얻어 맛보지 못하고 凡夫의 인간으로 生을 마감하여 다시 윤회하는 것은 너무 큰 후회의 원인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마이트리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가르친다.

“윤회는 단지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그 생각을 지워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된다.

이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이 계송으로 수행자들은 다시 한번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아 현실에 안주安住하지 않고 용맹정진하기를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는 것과 같이 하여 萬古에 빛나는 학이 되기를 바란다. ☺

5) 일행삼매一行三昧 : 진여법계는 평등일상平等一相인 것을 관하여, 진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상하는 삼매.

옴 주륵주륵 사바하

진용 / 사집과



* “옴 주륵주륵 사바하” – 운문사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스님의 가르침 그대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따르고 있으며 대중의 음식거리는 밥일을 통해 지금자족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 이목소의 물이 말라 모든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울 때면 용띠생인 스님들이 이목소의 물에 빠짐으로써 비를 기원하는 행사가 있다. 매년 스님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발원 덕분인지 이 행사가 있은 후에는 항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단비가 내린다.

나의 틀 속에서 벗어난 소임

동욱 / 사교과

운문사는 뚜렷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도량입니다. 뱃속까지 시렸던 추운 겨울보다도 짬통더위의 여름을 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마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담임 소임을 살았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때 나는 깨달음을 향한 길은 오직 참선만이 최고요, 다른 수행법은 외도라고까지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런 나의 어리석은 생각은 운문사 여름불교학교의 담임 소임을 살면서 참선은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편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문사 여름불교학교는 일명 ‘여불’이라 부릅니다. 세간의 말줄임 유행어처럼 이곳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간의 유행어처럼 들려서 좋지 않았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여불이란 말이 내 머릿속에선 고유명사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은 시끄럽고 어른 말은 절대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조금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소위 출가 전 사회에서의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어린이 교육에 속했던 스님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는, 아니 아이들을 싫어하는 내가 이런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곳 운문사에서 살았던 소임은 내가 잘해서 산 것도 아니고 소임을 살기 싫다고 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 철만 살면 되는 소임이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또한, 여불에 참여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을 운문사에서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원력’을 세웠고 음치, 박치 거기에다 몸치까지 삼치를 다 갖추어서 여불의 웃음거리가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TV 속 유명 가수의 몸짓을 따라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못해서 피나는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별로 만들어지는 반 가곡, 반 구호는 30초의 TV광고보다 더 짧았지만 나에게는 1시간 뮤지컬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무용을 조금 배운 도반스님의 지도로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반 가곡, 반 구호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나의 소임은 점점 원력으로 승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에 내 율동은 여불을 준비하는 소임자스님들에게 한번씩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 일명 ‘장엄물’이라고 하는 각 반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표구와 이미지 작업까지 병행

하니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더군다나 노래에 울동까지 하니 등줄기에 땀이 항상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불 준비 기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더웠던 여름을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보낼 수 있었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부처님 품처럼 잘 보듬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여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 여불 프로그램과 절에서의 생활이 부처님 품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준비기간이 지나고 아이들 방학 시기에 맞춰서 여불은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발우공양, 108참회, 경전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발우공양을 통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배우고 힘든 108배 참회 절 속에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부처님 경전인 부모은증 경 사경은 부모님께 말썽부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은혜로움에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2박 3일의 짧은 여불 기간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많은 날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될 것이고, 든든한 불종자를 제대로 삼을 수 있는 계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된 것이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즐겼던 컴퓨터 게임과 핸드폰에서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했던 아이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포근한 부처님 도량인 운문사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흙을 밟고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마 평생 동안 간직하게 될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자 이 시대 모두가 공감할 바인 비움, 이해, 부모에 대한 고마움, 자연에 대한 감사함 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메마르고 이해 타산적인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불교학교는 또 다른 나침반이 되어 아이들의 불교에 대한 깊은 뜻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참사랑의 교훈이나 목적을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장장이 된 것입니다.

대중의 소임을 살면서 얻어지는 열매는 소임을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알던 부처님보다 훨씬 더 큰 부처님을 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최상의 수행은 오직 참선이다.’라는 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를 통해 앞으로 ‘어렵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달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운문사의 여름불교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전과는 또 다른 수행방법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서산대사의 선물

지단 / 사집과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부운자체본무실浮雲自體本無實
뜬구름은 스스로 본래 실체가 없으니
생사거래역여연生死去來亦如然
나고 죽고 오고 감 또한 이와 같다.
독유일물상독로獨有一物常獨露
오직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흘로 밝게 드러나 있으니
덤연불수어생사湛然不隨於生死
담담히 생사에 따르지 않는구나.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湛然有死不一去隨物來於常亦生獨然死露然



- 서산대사의 입적송入寂頌 -

위의 계송은 서산대사西山大師(1520~1604)의 입적송이다. 서산대사는 조선 시대 중기 고승으로 승인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해서 영관 스님의 법을 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승군을 모집하여 평양성 싸움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서산대사의 저서로는 교를 선의 과정으로 보아 유교, 불교, 도교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삼교 통합의 기원을 담은 삼가귀감이 있고, 선교결, 설선의 등이 있다. 위의 입적송은 세수 85세에 묘향산 원적암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탈입망에 들기 직전 읊으신 것이다.

위의 계송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막 알에서 나온 햇병아리였다. 불가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 만난 이 계송은 생사의 경계를 다시금 전환시켜준 계기가 되었기에 내겐 의미가 깊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던 은사스님께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준 인연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가 출가한 곳은 오대산 월정사 말사인 지장암이다. 이름에서 보듯이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출가 전 집안이 종갓집이라 일 년에 열두 번 이상 제사를 지냈기에 제사는 친숙하다 생각 했는데 지장보살을 모신 사찰이라 그런지 지장암의 제사는 친숙을 넘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불교도 처음, 염불도 처음인 나는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만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이니 영가님, 이 염불 들으시고 극락왕생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며 제사를 지냈다.

한 해 정도 지나 이제 제사의식이 친숙해질 때쯤 처음으로 하게 된 염煊. 돌아가신 분은 은사스님의 오랜 신도였다. 유리벽 너머 누워 있는 신도님은 차디차고 딱딱하게 굳어 베린 한 덩이의 시신이었다. 순간 평소 독특한 패션 감각과 깨인 생각을 하셨던 신도분의 정열적인 모습이 대비되었다. 생을 넘은 육신은 딱딱하게 굳은 한 덩이의 시신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듯 죽음 앞에서 무상을 실감한 순간이었고 ‘죽으면 그저 한 덩이 고기에 불과한 이 몸뚱 이를 이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삼일장 후 강원도로 오는 차 속에서 피곤함은 있으나 신도분의 염하던 모습만이 차창에 비쳤다. 반흔의식 후 모든 가족을 보내고서야 그간 피로함이 물밀듯 찾아와 깊은 잠에 빠졌다. 그 후 난 한동안 ‘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며 깊은 상심에 빠져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중 우연히 손에 잡힌 작은 책자, 그 안에는 그동안 나의 무거운 마음을 한 번에 털어주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서산대사의 오도송이었다. 오도송은 그동안 얇은 소견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범했던 실수들과 승복을 입고 살면서도 죽음, 윤회, 인과를 망각하고 철저하게 믿지 않아 일으킨 실수들을 깨닫게 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상심한 것은 다만 신체적인 변화 과정 중 하나일 뿐인 죽음이라는 명칭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내 안의 껌데기에 속아 놀았던 것뿐.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구름은 스스로 본래 실체가 없으니 나고 죽고 오고 감 또한 이와 같으리라.

서산대사의 ‘오직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밝게 드러나 있으니 담담히 생사에 따르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허망하다 생각해서 기도와 마음 챙김 등 이 순간에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방일하게 생활하던 나를 다시 재발심하게 하였다. 또한, 어려운 일이나 내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철벽경계가 밀어닥칠 때면 쉽게 놓아버리고 피해버리던 나를 ‘이젠 이 껌데기에 속지 말자, 껌데기를 벗어날 때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더불어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 자리까지 생겨났다.

그 이후 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영가님, 우린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껌내고 두려워 마십시오. 더 좋은 곳으로 가시고 만약 이곳에 다시 태어난다면 더 착하게 삽시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만약 그때 그 순간 그 조그만 글을 읽지 않았다면 아마 난 아직도 허무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생각한다. 입적송을 만난 것은 혹시 서산대사께서 하루하루 방일함 속에 묻혀 있던 나를 어서 나가라고 내 앞에 살짝 가져다 놓으신 선물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삶은 허무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인과因果의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하기 좋은 시간이다. 오직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밝게 드러나 있으니 담담히 생사에 따르지 않는구나……. 서산대사의 마지막 계송처럼 각자의 한 물건을 찾아 정진여일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겠다. ☺

매미와 같은 시간

해운 / 사집과

언젠가 강사스님께서 “나에게도 매미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의 나는 아마 그 매미와 같은 시간에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 삭발할 땐 머리만 깎으면 뭐든지 될 줄 알았다. 전등록에 나오는 선사처럼 될 줄 알았고, 평생을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일인가? 마을에 있을 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업들이 산성비처럼 내려 모든 걸 태워버렸다. 존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절실한 순간들이었다.

사미니계를 받고 강원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강원의 공동체 생활도, 울력도, 상 · 하반 관계도,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 4년이란 세월이 두려웠으므로 은사스님께 안간다고 가기 싫다고 말씀드렸다. “그래도 강원은 꼭 졸업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이곳에 왔다.

치문이 끝나가는 지금 ‘강원은 꼭 졸업해야 한다.’는 은사스님의 말씀에 조금씩 공감하고 있다. 강원 오기 전 나는 머리 깎았다는 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습 그대로였고, 행자 기간 내내 부르짖었던 ‘하십’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승’으로서의 위의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저 머리 깎은 속인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운문사에서 32명의 대중과 24시간 매일매일을 함께 보내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괴짜들만 모인다는 이 승가에서 또한 괴짜인 내가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진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울고 웃고 한 일들이 부지기수. 나 하나가 잘못하면 32명이 다 같이 걱정 듣고, 나 하나가 아파 누우면 내 뜻의 일을 31명이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 21C 개인주의의 폐해에서 자란 내가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서서히 무뎌져 가고 ‘우리’라는 말에 익숙해져 간다.

서너 평 남짓한 지대방에 우리 반이 모두 모이면 32개의 입으로 각기 다른 32가지 이야기를 하고, 한 쪽에서는 간식을 먹고, 한쪽에서는 잠을 잔다. 한쪽에서는 ‘강(배운 경전을 강사스님 앞에서 외우는 것)’ 바칠 준비를 하며, 한쪽에서는 석차례(새벽예불 전에 하게 되는 도량석과 쇳송) 연습을 하고, 한쪽은 울력 가방 정리를 하고, 또 한쪽은 바느질을 한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했는가? 눈 한번 돌리면 좁은 지대방에 모든 세계가 다 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그 조그마한 곳에 희, 노, 애, 락이 다 들어 있다.

또한 수업시간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32개의 시선으로 제각기 해석하고 피터지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번역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다. 번역된 한글 경전은 대부분 재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는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번역한 번역일 뿐 우리 승단에서 배워야 할 깊이와 사상 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물론 한글로 된 경전을 봄으로 해서 한문 번역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원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묘미는 해 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다. 이 세대 마지막일지 모르는 강원 속 한문 교육에서 교육받은 우리는 원문을 접하고 배우는 것에 나날이 감사해 하고 있다. 처음에 아는 난자가 없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달리 차츰 난자와 친해져 간다.

울력은 또한 얼마나 즐거운지 풀 매기를 할 때는 자기 무명초를 뽑는다면서 굴착기처럼 풀을 매고, 낙엽 쓸 적에는 번뇌를 모두 쓸어낸다면서 비질하고, 김장 때는 소금물이 얼굴에 튀어 하얗게 되어도 배추에 빠져 배추쌈매경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마무리하세요.”라는 말과 동시에 도구를 손에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 반은 넓은 도량 곳곳을 누비면서 하루하루 울고 웃고 각자의 맑은 바에 최선을 다 하려한다. 매일 온 대중이 함께 발우를 펴고 상반스님과 함께 큰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입선을 들이며, 햇대에는 60여 개의 가사·장삼이 항상 걸려 있다. 쉬는 날에는 산내 암자로 포행을 가기도 하고 근처 계곡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한다. 이 시기 이때, 운문사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지내며 나아가고 있다.

김치도, 간장도 숙성되어야 제맛을 내듯 우리도 머리 깎은 속인에서 중으로 숙성되는 과정을 하루하루 밟아가고 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을에서의 내 가치관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마을에서도 무수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승복을 입고 반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승이 되기 위해 출가했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야 하지 않을까?

오기 싫었던 강원이었지만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인연과 복에 감사하며, 비록 지금은 매미와 같은 시간이지만 3년 후 나무껍질에서 나와 푸른 숲을 행유할 우리들을 기대한다.

“육체적으로 궁핍한 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리워질 거예요.”라는 담임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틱낫한 스님과 함께한 1박 2일

효엄 / 사교과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마시고,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설거지하면서 차 마실 생각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그 이후를 생각하지요.” 5월 8일 이 시대의 생불로 불리는 틱낫한 스님을 친견하고자 중앙승가대로 향했다. 가는 동안 틱낫한 스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7시 30분 중앙승가대 본관 앞에는 수많은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스님들로 가득했다. 평화로운 모습, 영혼의 등불을 켜기 위한 발원의 눈동자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위한 기다림의 희망찬 기대감을 지닌 밝은 모습들이다.

틱낫한 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와 함께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신 생불이시며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분”이라고 불린다. 이 행사에 대한 미산 스님의 행사소개 말씀 후 드디어 틱낫한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얼마나 뵙고 싶어 했던가?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하며 귀하고 귀하신 소중한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셨다. 아마도 두 번 다시 뵐 수 없는 한국은 마지막 방문이라고 말씀하신 스님이 아니시던가?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

스님 뒤로는 진한 브라운 색의 옷을 통일되게 입으신 스님들이 서 계셨다. 그 순간 아득한 시절 십대제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아난 존자, 수보리 존자, 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바로 저분들이 아니실까? 지금 이 순간 그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시끌벅적한 여기저기의 소리를 순식간에 수백명의 귀를 일시에 기울이게 해준다. 명상의 시간이다. 모두 비구니스님의 낭랑한 목소리에 집중하며 귀 기

울여 들어본다.

“등을 꽂꽂이 하고,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음
을……. 숨을 들이쉬며 나는 들이쉬고 있음을 압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쉬고 있음을 압니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나는 들이쉬는 숨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나는 내쉬는 숨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들이
쉬는 숨 내쉬는 숨 따라감.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나
는 내 몸 전체를 알아차립니다. 내가 숨을 내쉴 때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긴장을 풍니다. 몸을 알아차
림. 긴장을 품.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고요히
앉아 있음을 즐긴다. 내가 숨을 내쉴 때 나는 고요
히 미소짓는다. 고요히 앉아 있음. 미소지음.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릅니다. 내
가 숨을 내쉴 때 나는 지금 행복한 순간임을 압니

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순간.”

다시 종이 올리고 조용히 차분히 눈을 떴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몸과 정신이 가볍고 맑아진
것 같았다.

이어지는 걷기 명상시간. 틱낫한 스님은 대중
에게 “오로지 걸음에 집중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며 “숨을 관찰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과 대지의 접촉을 느낀다면, 그 걸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럿이 함께 걷는 것은 하나의 강물로서 흐르는
것과 같다. 거기엔 오로지 마음 챙김과 기쁨, 행복
만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셨다.

처음 접해보는 걷기 명상이 나는 그저 신기할
뿐이다. 걸으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데 집중하





21세기의 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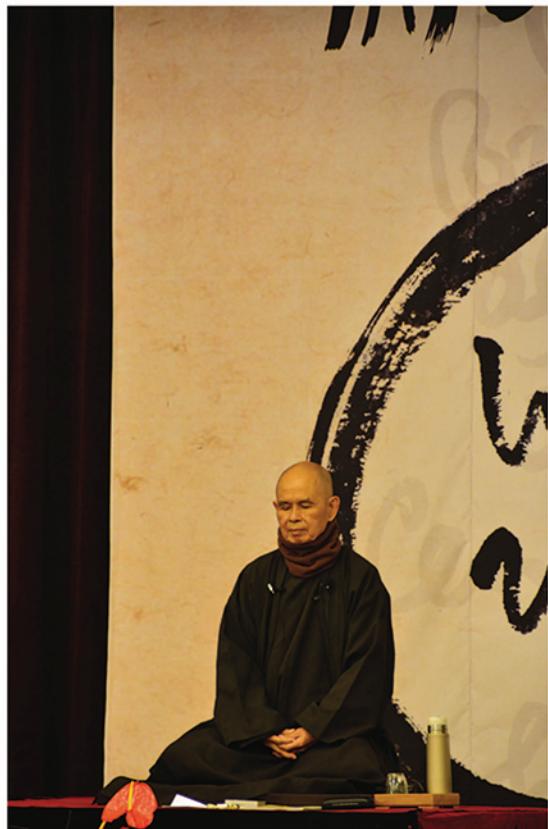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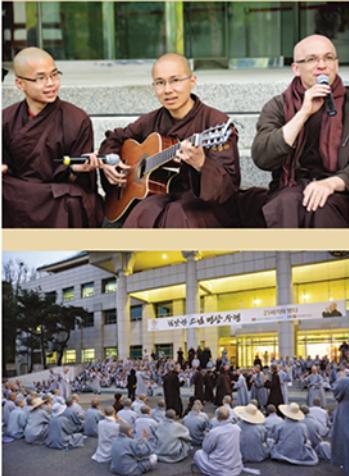
려고 노력해 보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똑바로 걷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천천히 똑바로 걸으려 할수록 뒤뚱뒤뚱거렸다. 한참 걷는 도중 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틱낫한 스님과 플럼 빌리지 스님들이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자연스레 사람들도 옹기종기 나무등치에 앉자 그 모습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침묵 속 500 여 명의 스님들이 오밀조밀 함께 앉아 있다는 그 유대감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다시 종이 울리자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걷기 명상을 마치자 바로 틱낫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강당으로 향했다.

법문 시간은 두 시간 정도였다. 법문 내내 틱낫한 스님은 조용하시며 꼿꼿하시며 밝게 빛나며 혼들림 없으셨다. 언제부터 보살행을 발원하시고 지니시며 행하시며 존재하셨으며 어느 깊이의 단

계까지 오르셨을까? 88세의 연세에도 저령듯 초연히 오랜 시간을 흐트러짐 없이 법문을 하실 수 있으신지…….

오전까지 진행된 걷기 명상과 스님의 법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마음 명상에 들어갔다. 오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이완 명상시간. 참가 대중은 모두 자리에 누워 모든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휴가 왔다고 상상하라.”는 스님의 편안한 설명에 이내 풀어놓으려는 소리가 들린다. 비구니스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하다. 수백 명이 틈 없이 빽빽이 누워 있는데도 세상 편한 얼굴이다. 감고 있는 눈을 단단히 붙여버리려는 듯 스님이 조곤조곤 노래하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왔던 강원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휴가라도 온 듯 편안한 휴식 속에 빠져본다. 치유……. 온전히 오감과 체감을 느끼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치

턱낫한 스님



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프로그램은 워크샵 시간이었으나 많은 스님들의 요청으로 문화교류의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법사단 40여 명의 챔팅(찬불가 및 염불)이 기타 반주에 맞춰 울려 퍼졌다. 강물에 몸을 맡기듯 음악에 몸을 맡기라는 스님 말씀대로 공기 속에 스며든 멜로디가 사람들의 호흡을 통해 몸으로 스며들었다. 플럼빌리지 법사단 스님들과 함께한 노래 부르기, 함께 참가한 스님들의 장기자랑 등을 통해서 서로 친밀함을 느끼며, 서로와 서로가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을 끝으로 첫날의 프로그램을 마쳤다.

둘째 날인 9일. 첫날과 동일하게 걷기 명상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다. 한번 해봐서인지 조금은 자연스럽게 내 숨을 들이쉬고 내 쉼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뒤뚱거리던 걸음도 조금 차분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점심공양 후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 토

론하는 시간, 내 안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내 안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수행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턱낫한 스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모여들고 배우고 익히며 행함을 학습한 뒤, 두려움·미움·화·의심의 마음을 치유해 평화로움과 기쁨을 만나고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여 나가는 존재의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해주시며, 가장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을 찾게 해 주시는 깨달으신 스승님. 그런 분을 친견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1박 2일간의 명상수행시간은 오래오래 내 기억 속에 남으리라 생각한다. ☺

『틱낫한의 사랑법』을 읽고

법기 /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흔히들 큰스님이 말하는 사랑이라 하면 다들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만,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스님들도 번뇌하고 괴로워했던 옛날 얘기들을 솔직히 얘기하며 깨달음에 대해 말씀한다. 『틱낫한의 사랑법』 또한 번뇌 안에서 배운 깨달음을 아주 평화롭게 이야기하듯 풀어가는 책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 일은 참으로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다. 무엇보다 나는 젊었고 그 사람 또한 젊고 예뻤다. 책 표지에 쓰여진 문구가 꺽이나 흥미롭다.

“사랑에 빠진 당신을 위해 그가 사랑학 강의를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아니 수행하는 스님이 무슨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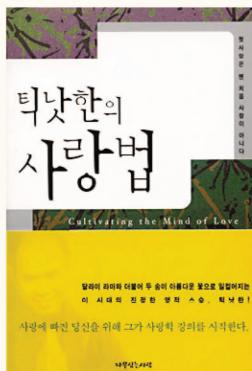
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가 실제로 겪었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베트남 어느 사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승에게 한눈에 반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던 그 젊은 시절!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잠시 동안의 그 마음은 이제는 중생을 향한 보리심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청춘남녀를 위한 사랑학 교재와는 거리가 멀다. 스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빗대어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인 금강경, 화엄경, 범화경, 유마경의 가르침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대승경전은 일반 불자라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경전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한다. 그 첫사랑은 무엇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잊지 못하는 것일까? 틱낫한 스님은 사랑을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춘남녀 간의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애착이나 집착이라고 보는 것이다. 누구나 외모적 아니면 조건들에 의해서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한눈에 반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큼 잘해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기가 쉬울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나아가서는



틱낫한의
사랑법

그 사랑에
사랑학
강의를
시작한다.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단점도 하나둘씩 보이게 되고 이때부터 애착은 집착으로 변해가게 된다. 처음의 그 마음과는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TV 광고에도 나오지 않는가?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 6개월! 그때부터는 시들해진다고…….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틱낫한 스님의 사랑법이란 불교에서 자비라고 말하면 적합할 듯하다. 자비는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나 분별심이 없는 평등한 대자대비한 사랑이다. 물론 이 자비는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사랑과 같은 의미다.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또는 사람에게만 애착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방 안에 가두어 놓고서는 아무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변화는 여러분이 무엇과 접촉할 때만 이루어진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우리는 대지의 든든함을 느끼며 안도감에 젖는다.”

사람으로 태어나 희, 노, 애, 락에 빠진 우리들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책을 번역한 분은 기독교 목사이다. 섬세하고 깔끔하게 번역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불교의 깊은 진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님의 사랑이야기도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외국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심심찮게 불교에 대한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쓰거나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다른 종교와의 벽이 너무 두터워 쉽사리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옮긴 분께 불교인으로서 감사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스님의 책을 소개해 올린다. ●

소통을 위한 열린 마음

무한의 가능성…….

그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불교계가 서로의 소통과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인 물의 미래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여성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없이 무더운 날씨.

길가에 솟아오르는 분수대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이 일렁대는 여름이다. 더위를 느끼는 존재들에 게는 여름이 원망스럽겠지만 여름이라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할 일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만 보면 때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의 방향성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얼마 전 조계종에서는 비구니스님도 호계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입법안이 올라왔다. 종헌개정안 제73조는 ‘호계위원의 자격은 율장과 청규, 법리에 밝은 승려’로 규정한 것으로 비구니스님도 호계위원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종헌개정안은 비구 비구니스님의 차별해소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되었다. 필자도 대한민국 여성대통령이 탄생함으로 해서 종교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생각했다. 또한 생각의 전환이 쉽지 않았을 원로의원스님들과 비구스님들에게 적잖은 감사와 존경심도 생겼었다.

하지만 때 이른 감사와 존경심이었을까? 역시나 과거의 전습에 대한 생각전환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비구스님들이라고는 하나 대부분의 비구스님들은 비구니스님이 호계위원으로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한 명의 비구스님도 비구니스님들의 입장에서 서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비구스님들은 때론 말한다. 남방불교에서는 비구니교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 비구니스님들은 감사해야 한다고…… 물론 감사한다. 부처님의 제자

가 되고 그 법을 이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행복과 감사 그 자체다. 하지만 그 감사와 행복에 대한 대상이 비구스님들은 아니다. 교단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과 아난존자, 또한 그때의 무수한 제자들에 대한 감사다.

부처님 재세시부터 비구니스님들의 교단은 명백히 있었고 아라한과를 이룬 비구니스님에 대한 내용도 경전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율장을 평계로 비구니스님들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께서 정하신 율장대로 명명백백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계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대는 흐르고 변하기 마련이다. 한 국가의 법률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무슨 덜 떨어진 주장인지 모르겠다. 만약 비구니스님들이 호계위원이 되어 비구스님들을 심하게 갈마하고 포살했다 하자. 비구스님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비구 비구니스님들의 의견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불교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왜 못할까?

만약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이없는 바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믿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가에서 조차 가부장 제도를 주장하고 남녀차별을 운운하게 되면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하물며 깨어 있어야 할 종교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호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자비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서비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모든 일에서 남성이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여성의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세간 출세간을 떠나 우리는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에 떨어지지 말고 부처님의 본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구니스님들은 이번 일로 더욱 내면을 다지는 뼈를 깎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리드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었을 때 좌충우돌하지 말고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세상과 부조리를 탓하기 이전에 현명한 비구니스님들이라면 지혜와 수행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의 그릇을 갖추는 수행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전부요, 내 생각이 옳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산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절대 양단을 가르치지 않는다. 무한의 가능성……. 그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불교계가 서로의 소통과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인 물의 미래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계가 여성의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기대해 본다. ♪

운문소식



▲ 단오선행



▲ 가초스님 법문



▲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식



▲ 주지스님 부산 영도구청 특강



▲ 여름불교학교

- 5월 24일 계사년 하안거결제를 맞아 25명의 선방스님들이 문수선원에서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 6월 3일 법륜 스님께서 남방불교 스님들의 비구니 승단 문화체험을 위해 방문하셨고 학인스님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6월 5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9~10일 제54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려 교화부스님 30명이 1박2일간 다녀왔습니다.
- 6월 11일 석불암 노스님 제사가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미안마 마하시 사원 스님들이 방문했습니다.
- 6월 12일 미안마에 마하시 센터에 선원장 아신 우 와사와 마하테라 스님께서 운문사를 방문하여 학인스님들을 위한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 6월 13일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요가 및 서예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오날을 맞아 대중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진 주지스님을 비롯한 이른스님들과 화엄반스님들은 경주 남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20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1일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위한 입재식이 교화부 법당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8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9일 티벳 달라이라마 승가대학 학장스님이신 가초 스님이 방문하셨고 선열당에서 학인들의 수행에 대하여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자캐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7월 5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치문반 백씨스님의 늦은 출가와 강원생활의 소회를 밝힌 법문은 청중을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 7월 6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3200명 훈련병에게 명성 회주스님께서 수계해 주셨고 일진 주지스님, 대학원생스님, 화엄반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8일 부산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세상을 정화하는 힘"을 주제로 (공무원, 주민 등 400여 명) 일진 주지스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 7월 26~28일 '체험! 육바라밀 우리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제35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열렸습니다.
- 8월 4일 여름철 두 번째 自恣 및 여름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8월 5일 32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자민 스님 • 이기태 • 윤금자 • 최희영 • 김관성 • 정연식 • 강한호
- 김종덕 • 허효선 • 이미정 • 권혁창 • 노기용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2002년에 「雲門」誌를 신청해 주신 분들은 10년이 지난 관계로 주소가 삭제되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재가신도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권 125호, 여름호, “布施…달”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운 여름을 찾고, 더운 여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찾는다고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그지없다고 하신 어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當八風境하야 心不動麼아? 선가귀감의 한 구절입니다. 이리, 쇠衰, 예譽, 훼殿, 칭稱, 기譏, 낙樂, 고苦……. 이익과 소멸, 명예와 상처, 칭송과 비판, 즐거움과 괴로움의 경계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如如할 수 있는가를 묻는 말이지요.

덥다고 시원함과 추운 겨울을 그리워하는 그 순간 부처님의 법을 잊고자 하는 수행도修行徒라면 한없이 들끓는 무진번뇌를 그 즉시 화두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중복이 지나 이제 여름의 막바지인 말복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밖의 청량함보다 내 안의 청량함을 찾는 것이 더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인연 있

는, 인연 없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 映祚

꽁꽁 언 얼음과 하얀 눈이 무척이나 생각나는 이 여름!

자꾸만 올라가는 불쾌지수 때문에 옆사람에게 혹시 짜증내거나 상처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보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뵈려갔을 때 만약 불상이 징그리고 있거나 화나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부처님 뵙기를 꺼려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보시가 아닐까요? - 拏懶



동자보살도, 간절함을 담아…….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학인스님들의 기고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담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일어 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아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솟타니 파라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 · 통권 제125호 · 2013년 7월 29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진광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영조 / 편집위원 · 나경, 현진, 효진, 주안, 제준, 수지, 현공, 덕인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영조
(운문의 여름 풍경) / 삽화 · 능과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